李 "우리 국민 잡아간 것 비인도적"… 이스라엘 강력 규탄

"이스라엘 영해 아닌데 왜 체포하나"
참모들에게 국제법 위반여부 질의
ICC,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데 대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에게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나포된 가자지구 인근 해상이 이스라엘 영토인지 여부를 물었다. 최근 인권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가 각각 탑승했던 구호선 두 척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잇달아 나포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추방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한국인 활동가들을)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그게 타당한 일이냐"면서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는 곳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스라엘이 그쪽에 통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다"며 "들어오는 선박들을 모두 다 체포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길 침범했다고 체포한거냐"고 물었고, 김 차관이 즉답하지 않자 "모르는 거냐,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냐.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 여기가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라고 질책했다.

김 차관은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든 선단들을을 모두 체포하는 정황"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아는 사람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고 다시 말했고, 위 실장은 "영해가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일부에선 지금 이스라엘이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여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토해서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 전투 중이니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발해 침몰시키던데, 끌고 가기가 숫자가 많다고, 선원들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거다"라고 또한번 물었다.

위 실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비춰 말하면 교전 상태"라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교전 중이면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게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스라엘군이) 잡아간 건 맞지 않냐"며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24개 회원국은 자국 영공과 영토에 네타냐후 총리가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여야,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두고 공방

민주당, 정부 신중한 대응 기조 지지
국민의힘 "공격 주체조차 못 밝혀"

여야가 2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조치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격 주체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58명이 있다. 성급한 판단과 강경한 대응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자국 선박이 공격받은 프랑스와 중국도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관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 26척의 우리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인질로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전체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에너지 확보가 안 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피해국 대부분이 이란을 특정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격 주체가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확인되더라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다른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배가 침몰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피격을) 했는지 밝히지 못한다는 건 정부의 심각한 무능"이라며 "지난 4일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발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6일 청와대 안보실장은 피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동맹인 두 나라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격으로 추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바로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선박 26척이 가만히 있는데 공격받으면 안 참는다'고 해야 했다"며 "그래야 이란으로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정부가 아닌 혁명수비대나 이란 내 다른 조직의 (공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모두 다 이란 측 아닌가"라며 "이란 측이 우리를 피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가정적인 답변은 유보하겠다"며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피격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 잔해가 지난 15일 한국으로 반입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사 중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숏츠 179만뷰 만든 경험으로 광진구민 공감 이끌 것"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③ 이진현
개혁신당 광진구의원 후보

"주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지방정치"
'맛의 거리 상권 금연구역 추진' 공약

이진현 개혁신당 광진구의원 후보(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4번·1998년생)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서도 손에 꼽는 20대 후보다. 이 후보는 청년과 기존 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구(화양동·자양3·4동)의 특성상 시민의 불편함에 발 벗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여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진현 후보는 "저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동네의 불편을 실제로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이 매일 걷는 골목, 통학로, 상권, 원룸가에서 느끼는 불편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구의원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광진구 라선거구는 건국대, 세종대, 원룸 밀집 지역, 상권, 주거지가 함께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청년, 학생, 1인 가구, 자영업자, 기존 주민의 삶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저는 이 지역에서 생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콘텐츠와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계속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방정치를 보여드리고자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어떻게 자신의 정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할까 늘 고민한다. 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개혁신당 중앙당에 근무하며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법에 능숙하다.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얼마 전 불었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불확실한 큰 꿈(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대신 작은 사치를 즐기는 한국 젊은 세대의 좌절'로 분석한 이 후보의 유튜브 숏폼 영상은 179만회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진현 후보 프로필
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4번·1998년생
현)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현)정치 유튜브 채널 '이진현의 다른 정치' 운영
전)개혁신당 중앙당 근무
나에게 지방선거란? '새로운 정치'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광진 맛의 거리 상권 금연구역 추진'도 관심을 끈다. 이 후보는 "특히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골목,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 원룸가와 상권이 맞닿은 구간에서는 흡연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과 상권 이미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실제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 담배꽁초가 집중적으로 쌓이는 구간,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가 큰 구간을 조사하고,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후 필요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안내표지와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둔 뒤 실효성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필요하다면 흡연 가능 구역 안내, 흡연부스 설치 검토, 담배꽁초 수거함 정비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저는 이 공약을 통해 광진구의 대표 상권을 '담배 연기와 꽁초가 쌓이는 거리'가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이 기분 좋게 걷는 거리'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